

K-푸드 단체급식 해외 수출, 식품 영토 확장

농축산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워홈과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24일 (주)아워홈(사장 이영표)과 K-푸드 수출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aT 권오영 수출식품사업과 (주)아워홈 설상인 글로벌사업부장이 참석해 △ K-푸드를 활용한 단체급식 해외 진출 확대 △ 지역 농산식품의 소비 촉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00년 설립된 (주)아워홈은 글로벌 유통 역량을 갖춘 종합식품 기업으로 해외 5개국 100여 개 사업장에 매일 18만 식의 단체급식을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급성정하는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국내외 유통 협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aT는 K-푸드 수출 전담 기관으로서



해외 단체급식 사업의 성장 잠재력과 (주)아워홈의 글로벌 사업확장에 주목해 이번 업무협약으로 K-푸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해외 현지 사업장에 한국식품으로 구성된 메뉴

를 공급하고 정기 메뉴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로써 국내 중소 K-푸드 기업에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제공해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과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할 계

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 앞서 aT와 (주)아

홈은 지난 3일 시범 협력사업으로 멕시코 몬테레이 LG전자 근로자 2500여 명에게 떡볶이를 비롯한 인기 K-푸드 메뉴를 제공하는 K-푸드 데이 단체급식 행사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메뉴는 인기 K-푸드 메뉴인 분식과 퓨전식 등 총 6가지로 △떡볶이 △북음김치 떡볶이 △만두 △김치 △우동 △음료 등 현지 근로자의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한국 드라마로 접했던 K-푸드를 직접 먹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단체급식으로 계속 맛보길 원한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aT 권오영 수출식품사업과 (주)아워홈은 K-푸드를 글로벌 급식시장에 널리 알리고 국내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농가소득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의 K-푸드 수출 주력 시장에 더해 멕시코와 같은 2~3선 국가에 우리 식품 영토를 더욱 확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은 26일 완주군 이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의 따뜻한 동행

완주군 이서면행정복지센터에 온누리상품권 기부

LX공간정보연구원은 26일 완주군 이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배귀순)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금은 10곳의 가정에 전달되어 식료품과 생활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기부는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정보연구원 관계자는 "이

번 활동은 LX연구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X연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해피빈 기부 프로젝트'를 연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총 300여명의 성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게 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중기청, 전주 신중양시장서 연말 소비진작 활동 실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6일 전주 신중양시장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참채된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소비진작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산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여러 회의체와 전주상의 및 다양한 협단체의 행사 등에서 소비진작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자체적으로 전주 신중양시장을 방문하여 상인 및 관계자들과 함께 체감경기 파악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보기 및 점심식사로 소비진작에 힘을 보탰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도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 및 지원사업 축소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25년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수출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기관 혁신·협업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당부

권재한 농진청장,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성과 공유·내년 중점 추진계획 논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전 본청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를 주재하고, 올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이상고온 장기화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수급 불균형, 병해충 확산 등 영농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역별 선제 조치를 보다 강화해 농업 피해 최소화과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청장은 이어 폭설·한파 등 겨울철 기상재해, 봄철 일조 부족 등에 대응하는 기관별 조치와 준비 상황을 듣고, 일선 영농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점검 및 홍보, 기술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 혁신 방안' 중 농업 정책지원 및 현장 해결을 위한 10대 프로젝트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 2025년도 기술 보급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권 청장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모두 혁신과 협업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진협 전북, 2024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회(회장 임근홍)는 26일 전주교육대학교 화학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 1강에서 회원사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건설산업연구소의 고상진 연구소장이 공사 낙찰제도와 설계변경에 대한 강의하였고, 2강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박상열 과장이 퇴직공예 및 전자카드제 그리고 기능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어 3강에서는 전북자치도회 회원자원부 최연환 부장이 실적신고서 작

성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실적신고 시 사용하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 사용방법, 시공능력평가 제도 및 개정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강의 자료 및 작성안내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사의 실적신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기 기자

JB금융지주 신규 임원 선임

김동성 감사본부 부사장·방극봉 경영지원본부 전무 신규 임명

JB금융지주는 김동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감사본부장(부사장)으로, 방극봉 전북은행 부행장을 경영지원본부장(전무)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성 선임 감사본부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Univ 국제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 1999년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2001년 기획조정국, 2003년 보험검사국, 2008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기획조정국 조직예산팀장과 감독총괄국장 등을 거쳤으며, 2019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김동성

방극봉

방극봉 경영지원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전북대 무역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전북은행에 입행해 인사지원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CFO)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광호 지주 준법감사인

은 전무로 승진했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